

“내 꿈은 유치원 교사 ... 아동 문제 다뤄 끌렸죠”



11일 개봉 '미쓰백' 주연 한지민 전과지역 말아 파격 변신해 눈길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길”

“천사 이미지요? 과대 포장된 면도 있습니다.”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한지민(36·사진)은 신이 난 아이처럼 눈빛을 반짝이며 조잘조잘 말했다. 속내를 털어놓다가 가끔 머쓱할 때는 ‘해해’하고 웃었다. 그동안 미디어에 비친 밝고 건강한 이미지 그대로였다.

한지민은 오는 11일 개봉하는 영화 ‘미쓰백’(이지원 감독)에서 타이틀롤을 맡았다. 그간 ‘밀정’(2017),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2011) 등 여러 영화에 출연했지만, 원톱 주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연기한 백상아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 받고 버려진 뒤 전과자가 돼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 가는 인물. 본명 대신 미쓰백이라는 호칭 뒤에 숨어 지낸다.

추운 겨울날 가정에서 학대당한 뒤 거리로 쫓겨난 소녀 지은(김시아)을 본 뒤 본능적으로 자신과 닮았음을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다.

“새벽에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무작정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문제에 분노가 일기도 했고, 백상아라는 인물이 안타깝고 측은하게 느껴져더라고요.”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을 정도로 아이들을 좋아

하는 그의 성향도 작품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평소 남다른 ‘조카 사랑’으로도 유명하다.

한지민은 이 작품에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감행했다. 백상아의 황폐해진 내면은 날 선 말투와 차가운 눈빛으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상아의 심리상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비뚤어진 사람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표정을 찡그리게 되더라고요. 거친 느낌을 주기 위해 피부도 건조하게 만들다 보니 주름도 많이 생겼고요. 안 쓰던 근육에 주름이 생기니까 감독님께서 다른 얼굴이 나온 것 같더라 좋아하셨는데, 저는 나중에는 슬슬 걱정되더라고요. 피부가 얇고 예민한 편이거든요. 결국, 촬영을 마치고는 피부과 도움을 좀 받았죠. 해해”

외적으로도 변화를 줬다. 탈색한 노란 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가죽점퍼와 복잡한 문양의 스커트를 즐겨 입는다. 엉악없는 ‘센 언니’ 이미지다. 그는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짐을 뺀 모습이 백상아의 시그니처 자세”라며 웃었다.

“상아는 혼자서 세상을 외면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방아 자세를 취하는 인물이죠. 그런 센 느낌을 보여주도록 신경을 썼어요. 특히 영화가 시작했을 때 관객들이 상아의 그런 행동을 보고 평소 제 이미지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관객들이 초반에 몰입이 안 되면 실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담배요? 영화 ‘밀정’ 촬영 때 짧은 장면이지만, 김지운 감독님이 진짜 담배를 피우길 바라셨죠. 그때 한 담배 연기가 도움 되긴 했어요.”

한지민은 극 중 상아가 소녀 지은에게 느끼는 감정을 ‘연대’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모성애는 아니에요. 상아는 엄마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성애라는 감정이 낯설었을 거예요. 또 어렸지만, 표현하는 법이나 세상과 소통하는 면에서는 어린이처럼 멈춰있는 인물이죠. 아마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손을 내밀거나 마음을 열지 못했을 거예요. 지은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쳐가 아니었을까요?”

그의 진심이 전해져서일까. 한지민은 ‘인생 캐리커를 만났다’는 평을 듣는다. 그는 “아직 개봉 전이라 안심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작품 캐릭터가 특징적으로 남는다는 것은 배우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민은 활발하고 밝은 이미지와 더불어 그동안 다양한 선행에 동참해 ‘천사표’ 연예인으로 대중에게 각인했다. 그렇기에 이미지 변신이 쉽지 않을 터다.

“천사니 이런 이미지가 따라다니다 보니 예전에는 부담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애써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하기보다 연기를 통해 그 속재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흥행에 큰 욕심이 없었다는 그는 “이 작품의 진심이 많은 관객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아동학대를 다룬 이야기라고 하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아이에 대한 마음,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자치 분권 현장을 가다 ... 특별기획 ‘지역독립선언’

광주MBC 등 16개사 공동 제작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밤 방영



광주MBC 등 지역MBC 16개 사가 공동 기획·제작한 ‘지역독립선언’(사진)이 오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밤 11시 10분 방영된다.

5차례에 걸쳐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충청권(세종시), 전라권(광주), 경상권(부산), 강원권(평창) 등 4개의 지역 거점을 순회하며 지방 자치와 분권의 화두를 토론과 쇼의 형식으로 담았다. 또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자치 분권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박해진 전 MBC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일 방영된 1편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은 무엇인가?’에서는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지역에 주어졌을 때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변화과정을 통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이어 8일 방영되는 ‘문화자치,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는 1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문화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인터라켄 주민연

극체 등을 다루며 문화자치와 분권을 살펴본다.

15일에는 ‘3편 자치와 분권, 지방도 잘 살 수 있는가?’와 22일 4편 ‘교육자치,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29일 다큐멘터리 ‘지역-자치-분권-새로운 미래’에서는 1편부터 4편까지 토론쇼의 과정을 기록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이슈를 재구성한다.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광주MBC 강명곤 편성기획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가 참여해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프레임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지식 공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자치강국의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해 소개하는 등 지역의 공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시작부터 재밌네” tvN ‘신서유기5’ 출발 순조

첫 회 시청률 5.7% 시리즈 최고 강호동·이수근 등 귀신분장 눈길



tvN ‘신서유기5’(사진)가 역대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시청률로 출발했다.

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처음 방송된 ‘신서유기5’ 첫 회 시청률은 5.7%(유료가구)로 집계됐다.

‘(귀)신과 함께’라는 부제와 함께 시작한 이번 ‘신서유기’에서는 출연자들이 귀신 복장을 선택하기 위해 모여 퀴즈를 푸는 장면이 전파를 뒀다. 조금이라도 덜 튀는 복장을 선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퀴즈를 맞히려는 멤버들의 모습과 ‘신서유기’ 특유의 자막과 화면 편집은 큰 웃음을 선사했다.

이번 시즌에는 블랙비 피오가 합류해 기존 멤버들과 새로운 호흡을 보여줬다.

강호동은 가오나시, 이수근은 처치, 은지원은 저승사자, 안재현은 강시, 송민호는 처녀 귀신, 피오는 드라큘라로 분해 앞으로의 ‘잘못’ 모험을 예고했다.

같은 날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는 10.8%, MBC TV ‘복면가왕’은 5.2%-8.4%, SBS TV ‘런닝맨’은 4.8%-7.3%, ‘집사부일체’는 7.9%-10.9%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탈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배드파파(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러블리 호러블리(재)		00 우리끼리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헬로킴지 동물교실 2 55 MBC 나눔 특집 엄마의 가을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영상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10 다큐 공감(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뽀빠리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토크노마드: 아침없이 주도록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매력청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습터	00 러블리 호러블리	00 배드파파	00 여우각시별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재동	10 불불간 당신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00 회사가기 싫어(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특집 다큐멘터리 <들엄시민>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엄마를 찾지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브라질 2부>
08:30 고고다노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우리동네 이방인 2부 봉주르 거제>
09:00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22:45 조식포함 아파트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3:55 엄마를 찾지마(재)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4:50 한국영화특선 <위험한 상견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양파 소박이와 양파 물김치>	16:45 당동명 유치원1~2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일(음 8월 23일 丁卯)

<p>子 36년생 서두르는 것은 착오만을 야기할 뿐이니 하나부터 열까지 차분하게 진행해야겠다. 48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60년생 확장하려 하지 말고 유지함이 합리적이다. 72년생 시급한 판시세이다. 84년생 시간이 지날수록 가관이로다. 행운의 숫자 : 22, 53</p>	<p>午 42년생 사려 깊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54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66년생 친화력이 필요할 때이다. 78년생 정세 파악에 능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생 과거에 대한 집착이 탈목을 잡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5, 65</p>
<p>丑 37년생 고생은 없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49년생 경사가 나서 떠들썩한 마당이로다. 61년생 단순한 비교는 편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73년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빨리 접는 것이 상책이다. 85년생 전반적이며 혁신적으로 개편되는 마당이로다. 행운의 숫자 : 32, 84</p>	<p>未 43년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중용의 도를 잃지 말자. 55년생 오늘 반드시 실행하자. 67년생 특장적인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79년생 절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가 상당하다. 91년생 대화의 부족은 오해를 낳는 원인이 된다. 행운의 숫자 : 41, 35</p>
<p>寅 38년생 징조가 보이거든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리해야 한다. 50년생 계속 행해야 실효적이다. 62년생 매우 강도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74년생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86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길사가 이른다. 행운의 숫자 : 34, 93</p>	<p>申 44년생 일관성 있는 진행만이 결실로 이끌 것이다. 56년생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감정을 구분하자. 68년생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80년생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년생 방심하다가 는 혼돈도 없이 사라진다. 행운의 숫자 : 65, 13</p>
<p>卯 39년생 지금의 형세가 향후의 지속적인 위상을 좌우 해 버릴 수도 있다. 51년생 서로 탐색하는 시기를 갖게 될 것이다. 63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성사시키기가 쉬워진다. 75년생 강인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87년생 우연히 마주칠 수다. 행운의 숫자 : 14, 63</p>	<p>酉 45년생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57년생 협조를 가장 해서 자신의 실수를 채우려는 이가 보인다. 69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바를 펼친다면 뜻은 이루리라. 81년생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뒤돌아다보라. 93년생 심리적인 압박감이 따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0, 88</p>
<p>辰 40년생 아는 것이 오히려 우환의 씨앗이 되리라. 52년생 동기 부여가 절실한 마당이다. 64년생 투명하게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법이다. 76년생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어야겠다. 88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0, 89</p>	<p>戌 34년생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 46년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후환이 없겠다. 58년생 상대를 존중했을 때 자신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70년생 팔원임을 알아야 한다. 82년생 상대의 속사정은 따로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7, 73</p>
<p>巳 41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53년생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때 놓은 당상이로다. 65년생 부족하니 속히 보완토록 하자. 77년생 잘 살린다면 예상보다 많은 결실이 따른다. 89년생 느낌보다는 사실적 정황에 비중을 뒤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7, 83</p>	<p>亥 35년생 후일을 기약하는 편이 낫다. 47년생 이익을 꾀하려다가 명예마저 실추 수 있다. 59년생 뚜렷한 주관과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71년생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점을 안게 된다. 83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탈이 없다. 행운의 숫자 : 61, 78</p>